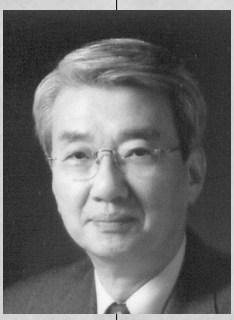

자율방역을 스스로 실천하는 축산의 파수꾼이 되자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지난겨울 한파에 움츠렸든 잿빛 하늘을 열고 얼어붙었든 대지를 박차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고귀한 생명력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3월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충만한 봄을 맞이하여 축산농가 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였고, 축산경제에 치명적인 외래성 악성전염병을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막아냄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축산업이 새해 벽두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여 수입을 금지 해왔던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어렵게 타결되었고 2월 들어서면서 국내 축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3월과 2002년 5월, 두 차례나 발생하여 국내 한우, 젖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산업에 3,006억원과 1,434억원의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려 우리의 축산 발전을 멈추게 했던 "구제역"도 인접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교역과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유입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부루세라병이 한우에 감염 확산되고 있어 사육가축 뿐만 아니라 출하, 이동가축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 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양성축에 대한 적극적인 살처분 도태를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향후 방역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

전염병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외악성전염병이 찾아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악성전염병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특별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농장의 방역상황을 점검 해 주십시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실한 신념과 농장별, 부락별 자율적인 차단방역을 스스로 실천 할 때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율적인 차단방역 농장에는 전염병이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함께 실천하는 축산업의 파수꾼이 되어 희망찬 봄을 열어 갑시다.